

# ‘라임·옵티머스 사태’ 새 국면...특혜성 환매·횡령 추가 적발

###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사건 재검사...위법 행위 검찰 통보 횡령 자금 용처 등 수사 예상...전 정권 인사 재조준 관측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사태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추가 적발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정권에서 ‘뱀주 기 의혹’이 불거졌던 3대 펀드 사건을 정조준함에 따라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 자금 유용도 추가로 밝혀냈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재검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역시 부실 운용과 불안정한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대규모 횡령 등 추가 혐의를 통보받은 만큼 자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며 정치권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이 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20년에 연달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충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이들 사건은 막대한 피해 규모뿐 아니라 문제인 정부 당시 정권-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번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재단>

## 윤 대통령 “민간 투자 활성화 막는 킬러규제 빠른 속도 제거를”

### “공직자 마인드 확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 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서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충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우리 농축수산물로 추석 선물하기’ 릴레이 SNS 캠페인

국민의힘은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수산물로 추석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소속 의원 111명이 농·축·수산물 추석 선물하기 인증 및 장려글을 SNS에 올릴 예정이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석이 다가오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으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함이 입증되긴 했지만, 국민 입장에서 민주당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여름 특별한 무더위와 수해로 인해 농민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 111명 한분 한분이 오늘부터 추석 선물을 우리 농·축·수산물로 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각 개인이 출발점으로 해서 전 국민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게나 마찬가지다. 정치 선동으로 어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에 함께해주시고 직접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국힘 조강특위 36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인 36개 사고당협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앞서 조강특위는 40개 사고당협 중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탈당한 황보승희(부산 중·영

도·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지역구 4곳을 제외하고 조직위원장을 공모했다.

이들 36개 사고당협에는 86명의 신규 지원자가 면접을 봤다.

이 중에서 서울 마포갑은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지원해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과 맞붙게 됐다.

서울 광진구는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 강서구는 이 지역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된다.

한편,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